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의사이고 싶다



김태원 교수는 환자에게 배려와 위로의 한마디를 잊지 않는다. 암과 사투를 벌이는 이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원 교수는 환자에게 “집이 먼데 불편하지지요?”, “우리 한번 이겨내봅시다”와 같은 배려와 위로의 한마디를 잊지 않는다. 암이라는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이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동시에 100% 완치라는 불가능한 희망을 전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하겠노라 약속한다. 김 교수의 따듯한 한마디 끝에 환자들은 ‘암을 이겨보겠다’는 의지를 되찾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한다.

암 치료 연구에 이바지하고 싶었다

1991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던 김태원 교수는 서울아산병원(당시 서울중앙병원) 내과 과장이었던 홍창기 명예교수를 만나게 될 기회가 있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의학의 방향성이라든지, 환자를 대하는 철학 등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분에게 의술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내과를 선택했고, 1992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

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항암제를 비롯해 암치료법이 다양해졌지만, 1990년대 초반 하더라도 수술 외에는 방법이 많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종양내과의 발전 가능성이 커 보였고, 보람된 연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울러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이정신 명예교수의 진료와 연구를 옆에서 지켜보며 종양내과에 몸담아 보겠다는 확신을 가졌다.

종양내과는 항암제 등의 약물로 암을 치료하는 의학 분야다. 초기의 암보다는 주로 진행이 됐거나 전이가 된 암을 자주 목격하는 분야다 보니 환자를 치료하는 것 이상으로 잘 돌보는 것 역시 목표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종이 임박한 암환자들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담당하기도 한다.

“암 치료라는 것이 종양내과 뿐만 아니라 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등의 많은 의료진과 함께 협업을 통해 이뤄지거든요. 최근에는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 등 새로운 치료법이 많이 나와서 예전에 비해 종양내과가 암 치료에서 맡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암 치료법을 찾는 끊임없는 연구 여정

2008년 아스트라제네카사의 결장직장암 치료제의 다국가 임상시험을 진두지휘했던 김태원 교수는 좋은 결과를 얻진 못했지만, 첨단 임상시험 연구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에는 서울아산병원 중앙내과 홍용상 교수 등과 함께 직장암 수술 후 새로운 보조항암치료제를 통해 재발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음을 임상시험을 통해 증명했다.

이 연구는 세계적인 의학저널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에 게재됐고, 전세계 임상종양분야의 표준 진료방침인 ‘미국암센터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또한 국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시작하면서 임상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 제넨텍의 ‘쉬바 말렉(Shiva Malek)’ 박사와 함께 유전자 돌연변이 암 치료제 ‘벨바라페닙(belvarafenib)’이 악성 흑색종과 대장암 환자에서 치료효과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 치료법에서 발생하는 내성 기전과 극복 방안을 동시에 밝혔다.

치료법이 없었던 환자들에게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이 연구는 지난 9월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지에 게재됐다. “임상 의사와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자가 함께 협업하면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기에 의의가 있었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암병원의 발전, 아산병원과 동료 덕분

지난 9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2022년 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이 세계 5위에 랭크됐다. 암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인 연 평균 2만여 건의 암수술을 시행하며,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암환자를 치료한다.

국내 최초로 시작한 암 통합진료는 암 관련 진료과 의료진이 한 자리에 모여 진료 하는 시스템이다. 단순히 평균적인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선호도까지 고려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한다. 매년 4천 건 넘게 시행하고, 작년 기준 심사평가원의 신청된 통합진료의 30% 이상을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이 차지했다.


최근까지 유방암 수술 3만5,000례, 대장암 3만3,000례, 복강경 위암 1만례, 식도암 로봇수술 500례 이상을 실시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실적도 자랑한다.

“암치료 수준을 꾸준히 높여온 노력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던 것 같다. 전임 암병원장들, 여러 의료진과 직원들의 노력과 서울아산병

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암병원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김 교수는 고마움을 표했다.

서울아산병원은 2003년 암병원의 개소 이후부터 약사와 전문간호사, 임상시험 코디네이터의 해외 연수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2009년 세계 최초로 암환자 전용 응급실인 긴급 진료실, 2012년에는 유전체맞춤암치료센터를 개소했고, 암통합진료센터, 암환자를 위한 주사실 확장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졌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은 한 단계 앞서 나갈 예정이다. 2020년 3월 국내 최초로 임상과 유전자 정보를 결합한 정밀의료 통합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암환자의 맞춤형 진료 및 연구에 적용했다. 김 교수는 “암환자들에게 치료 여정에 맞는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암병원의 목표이자 숙제”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같은 장기에 생긴 암이라도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하다보니 예전과 달리 치료법도 복잡하고 많아지는 추세다. 동시에 유튜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그릇된 치료법을 전달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 디지털 매체나 책을 통해 올바른 암 치료 정보를 전할 것이라는 김 교수는 “암치료법 연구에도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나마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싶다”고 밝혔다.  글 편집부

서울아산병원이 국내 최초로 시작한 암 통합진료는 매년 4천 건 넘게 시행되고 있다. 암통합진료센터에서 여러 교수와 함께 진료 중인 김태원 교수(오른쪽 첫 번째).

